

백제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성격

박서영*

- I. 머리말
- II. 무령왕과 왕비의 喪葬儀禮
- III.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형태
- IV.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장식 문양
- V. 맺음말

I. 머리말

백제 무령왕(462~523)과 무령왕비(?~526)의 合葬墓인 무령왕릉에는 왕과 왕비의 목제 두침과 목제 족좌가 부장되었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死者의 머리와 다리를 펼 수 있는 U자형과 W자형의 홈이 있는 형태이다. 표면은 얇은 金版, 黑漆, 여러 색의 顏料 등을 이용하여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두침과 족좌는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나 그 형태나 사용양상은 무령왕릉과 차이가 있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목관을 안치했던 棺臺 위에서 출토되었다. 무령왕의 두침을 제외한 나머지 3점은 온전하게 남아있었으며 깊은 홈을 가진 형태였다. 이러한 출토양상은 두침과 족좌를 부장용품으로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

* 홍익대학교

지고 있다. 그동안 두침의 표면 장식이나 문양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¹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이를 바탕으로 본 장식과 문양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령왕릉에서 보이는 새로운 무덤형식과 상장의례의 수용, 내세관에 대한 고찰을 선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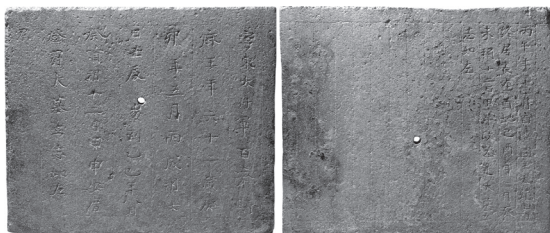
무령왕은 웅진 천도 후 혼란했던 백제 사회와 왕실을 다시 중흥시켰던 왕이다. 그는 중국 남조 梁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백제를 재정비하였다. 무령왕의 무덤도 전통적인 묘제와는 다른 양의 塼築墳 형식을 수용하였다. 상장의례에서도 양으로부터 풍수설, 가족장, 유교식 3년상 등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왕과 왕비 모두 사망 후 바로 묘에 안치되지 않고 27개월 간 현재의 왕릉이 아닌 다른 곳에서 殯葬을 치른 점이다. 빈장은 죽은 자를 바로 묘에 안치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 두고 의례를 행하는 일종의 2차장이다. 본고에서는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가 새로운 상장의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용도에 접근하고자 한다. 더불어 두침과 족좌의 표면에 배풀어진 문양 구성과 그 의미도 장례용구로 사용한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해석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무령왕과 왕비의 喪葬儀禮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령왕릉의 묘제는 남조 양나라로부터 수용한 전축분이다. 전축분은 백제의 전통적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묘제이다. 무령왕릉과 인접한 또 다른 전축분인 송산리 6호분에서는 ‘梁官瓦爲師矣’라는 명문이 새겨진 폐쇄전이 출토되었다. 명문의 2, 3번째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양의 관아 혹은 장인을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양의 도움을 받아 전축분을 축조한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로 축조한 전축분은 웅진기 공주지역 소수의 고분에서만 등장할 뿐 지속되지 않는다.

¹ 진홍섭, 「武寧王陵 발견 頭枕과 足座」, 『百濟研究』 6(1975), pp. 169-177(「두침과 족좌」, 『백제 무령왕릉』(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pp. 119-127에 재수록); 吉村 恰, 「百濟武寧王妃木枕に描かれた佛教圖像について」, 『美術史研究』 14(1977), pp. 29-47(「百濟武寧王妃木枕に画かれた天人誕生圖」, 『中國佛教圖像の研究』(東方書店, 1983), pp. 117-134과 「百濟武寧王妃木枕に描かれた佛教圖像」, 『天人誕生圖の研究』(東方書店, 1999), pp. 91-106에 재수록); 邵磊, 「摩羯紋의 東晉過程에 관한 약간의 문제 - 百濟 武寧王妃 木枕에 그려진 魚龍紋의 起源에 대하여」, 『충청학과 충청문화』 5(2006), pp. 115-132; 강우방,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영기화생의 조형해석과 도상해석」, 『무령왕릉을 격물하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46-175; 장석오, 「武寧王妃 頭枕에 그려진 魚龍文의 實體」, 『百濟文化』 49(2013), pp. 213-242.

백제와 남조의 교류는 무령왕 이전부터 이어져왔지만 묘제 수용은 이 시기에만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조 묘제의 도입은 당시 무령왕이 추진한 왕권강화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무령왕은 양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묘제의 수용은 단순한 기술 전래의 문제를 넘어 亡者를 대하는 새로운 사상과 禮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묘제와 더불어 새롭게 받아들인 상장의례의 내용이 주목된다.



도 1 <무령왕 墓誌> 525년, <무령왕비 墓誌> 529년, 35×41.5×5cm, 무령왕릉출토,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과 왕비의 상장의례는 현실로 향하는 통로인 羨道에서 출토된 지식 중 묘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도 1). 무령왕 묘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523년) 5월(병술일이 초하루인데)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525년) 8월(계유일이 초하루인데)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되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²

가장 처음에 언급된 영동대장군은 무령왕이 梁武帝로부터 수여받은 장군호이다. 『宋書』卷40 志第30 百官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은 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며 실제로 무령왕릉의 규모, 세부 구조 등은 비슷한 등급의 남조묘와 유사하다고 본다.³ 또한 묘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유교식 상장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 묘지에 따르면 무령왕은 523년 5월 7일에 죽었지만 시신은 왕릉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안치되어 있다가 525년 8월 12일에 안장하여 지금의 무령왕릉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이 死者를 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정기간 실내에 안치하거나 가매장하여 그 기간 중 儀禮를 다하여 봉사하는 장법이 빈장이다.⁴ 무령왕의 빈장 기간은 27개월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

²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登冠大墓 立志如左.” 지식의 원문과 해석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 149-157.

³ 周裕興,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무령왕릉을 중심으로-」, 『百濟文化』40(2009), p. 132.

⁴ 和田萃, 「殯の基礎的考察」, 『日本古代の儀禮の祭祀・信仰』上(塙書房, 1995), p. 11; 빈의 字意는 『說文解字』歹部 “殯 死在棺 將遷靈柩 賓遇之 從歹賓 賓亦聲 夏后賓胙階 殷人賓於兩楹之間 周人賓於賓階.”

로 무령왕보다 약 3년 뒤에 죽은 무령왕비 묘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오년(526년) 12월 백제국왕대비가 천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서쪽의 땅에서 상을 마치고 기유년(529년) 2월(계미일이 초하루인데) 갑오일인 12일에 다시 대묘로 옮겨서 정식 장례를 지내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⁵

무령왕비는 526년 12월에 죽은 후 529년 2월 12일에 대묘로 옮겨 뉘시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무령왕과 동일하게 27개월간 빈장을 치른 것이다. 더욱이 무령왕의 묘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빈장을 행한 장소인 殯殿을 酉地라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닌 방향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주 정지산 유적이 빈전으로 논의된 바 있다.⁶ 무령왕과 왕비가 동일한 장소에서 빈을 행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빈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무령왕과 왕비 모두 빈장을 행하였고 기간도 27개월로 동일하다.⁷ 여기서 27개월이라는 기간은 유교의 3년상을 의미한다.⁸ 백제에서는 무령왕 이전에도 3년상이 행해졌지만 27개월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유교식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3년상은 상복을 입는 服喪을 27개월 동안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빈장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이다.⁹ 반면 무령왕 부부의 경우는 복상과 빈장 기간이 일치하는 매우 긴 빈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령왕과 왕비의 상장례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묘제, 의례를 도입하여 따르면서도 백제적으로 변용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¹⁰

빈장의 이유로는 死者를 소생시키려는 노력, 대묘를 축조하는 시간, 살을 썬히기 위한 목적

5 “丙午年十二月 百濟國王王妃壽終 居喪在酉地 己酉年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 改葬 遷大墓 立志如左.”

6 정지산 유적은 기와건물지와 벽주건물지, 목책시설 등을 통해 국가시설물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얼음을 열려 두는 氷庫의 존재, 조문사절의 방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가야토기, 일본 須惠器 등 외래계 토기 출토, 지식의 방위도와 일치 등을 근거로 빈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사유적이거나 일반적인 국가시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공주박물관, 『백제의 제사유적 정지산』(1999); 김길식, 「氷庫를 통해 본 공주 정지산유적의 성격」, 『고고학지』 12(2001), pp. 49-75; 이한상, 「발굴에서 해석까지-정지산 유적의 사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사계절, 2014), pp. 616-621.

7 무령왕과 왕비의 3년상을 28개월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중국 상장례의 영향을 받은 것은 동일하다. 조정철, 「백제 왕실의 3년상-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5(2009), pp. 105-139.

8 3년상은 천자가 죽은 지 13개월 쯤에 小祥, 25개월 쯤에 大祥, 27개월 쯤에 禫祭를 지내고 喪이 종료되는 것이다. 窪添慶文, 『中國の喪葬儀禮』, 『日本古代史講座』 9(學生社, 1982), p. 93; 3년상의 기간으로 25개월설과 27개월설이 있는데 27개월설은 後漢 정현의 說이다.

9 남조 황제들의 경우에도 蕭道成 약 45일, 陳文帝 54일, 宣帝 40일 등 기간이 일정치 않고 대개 1년 미만으로 經書와 부합하지 않는다. 권오영, 「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무령왕릉과 남조묘의 비교」, 『백제문화』 31(2002), pp. 58-59.

10 위와 같음.

등이 거론되었다.¹¹ 무령왕과 왕비가 긴 빈장기간을 가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령왕비의 경우 이미 무덤이 축조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무령왕과 동일한 빈장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는 장례절차 가운데 특히 빈장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도 현재와 같은 삶을 계속 누린다는 계세사상을 믿고 있었다. 이에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일정기간 같은 공간에 두기도 하였으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시신을 원형

대로 보존하여 묘에 매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¹² 시신 보존을 중시한 것은 몸이 훼손되면 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신체를 보존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도교적 내세관과도 관련이 있다.

무령왕릉에 나타난 27개월의 빈장은 유교의 3년상 기간을 따라 시신을 빈전에 모셔 예를 표하고,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온전히 보존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유교의 예를 따르되 사자를 대하는 백제인들의 전통적인 내세관과 도교적 요소가 결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장례유구로서 두침, 족좌의 용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 2 左上: 〈무령왕 두침〉(복제품), 523년경
 左下: 〈무령왕 족좌〉, 523년경, 38×20×9.7cm,
 右上: 〈무령왕비 두침〉, 526년경, 40×33.7×12.2cm
 右下: 〈무령왕비 족좌〉, 526년경, 39.5×21.9×11cm,
 무령왕릉출토, 국립공주박물관

Ⅲ.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형태

시신을 괴는 것은 두침과 족좌의 일반적인 용도인데, 무령왕릉의 경우는 동일한 예가 없는 독특한 형태인 점이 주목된다(도 2). 두침은 U자형의 깊은 홈이 있어 머리가 깊숙이 들어가게 된

11 권오영,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한국고대사연구』 20(2000), pp. 22-27.

12 장인성, 「무령왕릉 묘지를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百濟研究』 32(2000) p. 167; 박중환, 「금석문을 통해서 본 백제인의 내세관」, 『역사학연구』 29(2007), p. 37.




13 빈장과 도교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김영심, 「무령왕릉에 구현된 도교적 세계관」, 『한국사상사학』 40(2012), pp. 215-221.

다. 족좌는 W자형으로 흙을 만들어 양쪽 다리를 하나씩 끼우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두침과 족좌와는 다른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침과 족좌의 연원 및 형태상 특징을 파악하여 상장의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두침과 족좌의 연원

고대 동아시아 고분에서는 여러 형태의 두침을 사용하였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형태상 특징을 찾기 위해 중국 春秋戰國時代부터 南北朝時代까지의 주요 출토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족좌는 아직까지 알려진 예가 없어 두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침의 재료와 형태 및 표면장식은 매우 다양한데 시신의 머리를 괴는 흙의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춘추전국시대~남북조시대 두침의 유형 분류

흙	직선형		반타원형
	Π자형	서수형	
특징	상판과 다리로 구성된 형태	서수 장식이 부가된 형태	완만한 흙이 있는 형태
형태			

먼저 살펴볼 유형은 Π자 형태이다. 머리를 두는 상판은 직선형이며 양쪽에 다리가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湖北省 荊門 包山 2號墓 출토 〈漆枕〉, 湖南省 長沙 馬益順巷 1號楚墓 출토 〈漆枕〉 등 춘추전국시대의 漆枕에서 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는 漢代에도 제작되었다. 江蘇省 徐州市 獅子山 楚王陵의 여러 묘실 가운데 金縷玉衣가 발견된 西제5실과 부장묘에서 옥침이 출토되었다. 그 중 부장묘 출토 〈옥침〉은 Π자형인데 상판의 양측에 瑞獸의 頭部를 묘사한 장식을 추가하였다(도 3). 이와 같이 두침에 서수를 장식하는 것은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유형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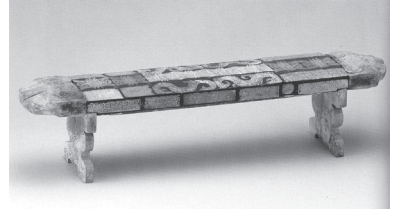
두침에 흙이 없는 직선형 중 서수형은 서수 장식이 상단에 부조로 올라가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前漢시기의 王侯貴族墓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⁴ 대표적으로 河北省 滿城縣 滿城漢墓 1·2

¹⁴ 王永波·劉曉燕, 「漢代王侯的陵寢用枕」, 『東南文化』122(1998), pp. 9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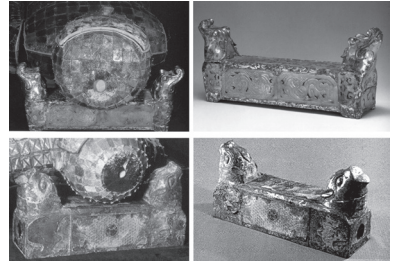
號墓 출토품이 있다. 만성한묘 1호묘는 漢 景帝(재위, 기원전 157-기원전 141)의 아들이자 漢 武帝(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의 이복형제인 中山靖王 劉勝, 2호묘는 그의 부인인 竇綰의 묘이다. 두침은 금루옥의를 입을 피장자와 함께 출토되었다(도 4). 1호묘 출토 <청동옥침>은 도금한 청동 본체에 龍, 虎와 같은 동물이 조각된 옥을 감입하였다.¹⁵ 양쪽 상단에는 코가 달려있는 서수의 頭部를 올렸고 하단에는 서수의 발이 부착되어 두침을 지지하는 형태이다. 2호묘 출토 <청동옥침>은 측면에 玉璧을 감입하였고 양쪽 상단에 돼지와 같이 코가 강조된 형상의 서수를 장식하였다.¹⁶ 漢代 葬儀用 玉器는 악한 기운으로부터 피장자를 보호하고 사체의 부패, 훼손 등을 막는 의도로 사용하였다.¹⁷ 옥을 감입한 두침의 양쪽 상단에 서수장식을 부가함으로써 辟邪의 기능과 의미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수장식은 무령왕비 두침으로 이어져 주목된다.

마지막 유형은 상면에 머리를 두는 타원형의 홈을 마련한 것이다. 河北省 定縣 八角廊村 40號墓에서 출토된 <옥침>은 크기가 작은 여러 장의 옥을 감입하여 만든 것으로, 金縷玉衣를 입을 피장자와 함께 출토되었다(도 5). 상면을 직선형이 아닌 반타원형으로 만들어 머리를 더 편안하게 둘 수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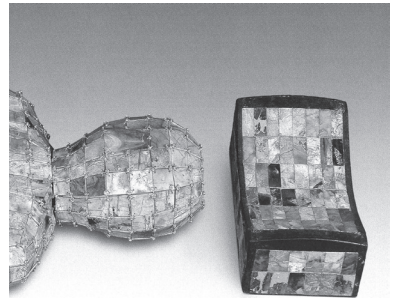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두침이 우리나라로 언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남북조시대



도 3 <옥침>, 前漢, 江蘇省 徐州市 獅子山 楚王陵 출토, 41,7×7,8×9,5cm, 徐州博物館



도 4 上: <청동옥침>, 前漢, 滿城漢墓 1호묘, 17,6×44,1×8,1cm, 河北省博物館
下: <청동옥침>, 前漢, 滿城漢墓 2호묘, 20,2×41×11,1~11,8cm, 河北省博物館



도 5 <옥침>, 前漢, 河北省 定縣 八角廊村 40號墓 출토

¹⁵ Xiaoneng Yang, *The golden age of Chinese archaeology*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1999), pp. 393-395; 東京國立博物館, 『中國國寶展』(東京: 朝日新聞社, 2000), p. 146.

¹⁶ 王永波·劉曉燕, 앞의 논문, p. 104.

¹⁷ Wu Hu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Understanding Chinese Tomb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pp. 131-138.

漢代와 같이 두침이 부장용구로 많이 출토되지 않는다. 북위 山西省大同司馬金龍墓에서 〈목침〉, 山西省大同沙嶺壁畫古墳에서 〈석침〉이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도굴의 피해를 많이 입은 남조의 고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다.¹⁸ 삼국시대 이전에는 평양 석암리 205호분에서 〈흑칠침〉 1점, 전 평양 출토 〈칠침〉 1점 등이 알려져 있어 현재로서는 낙랑을 통해 두침과 족좌를 부장하는 양상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¹⁹

2. 형태적 특징과 용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주로 석제로 만든 두침과 족좌가 출토되었다(표 2). 6세기 백제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많으며 두침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3).

먼저 무령왕릉 출토품은 사다리꼴에 U, W자형 홈을 가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앞서 살펴본 유형에서는 동일한 예가 없는 것으로 특히 홈이 깊게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무령왕릉 두침

표 2 삼국시대 두침과 족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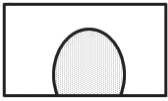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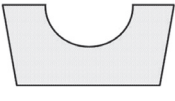
시대	유적명	출토유물	수량	홈의 형태	제작연대
백제	공주 무령왕릉	목제 두침	2	U자형	6C 초
		목제 족좌	2	W자형	
백제	나주 복암리 고분군 1호분, 3호분	석제 두침	6	반타원형2	6C 후반~7C
백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3호 석실	석제 두침	1	반타원형2	6C 후반~7C
백제	보령 웅천면 구룡리	도제 두침	1	반타원형2	7C
신라	전 경주 출토	도제 두침	1	반타원형2	5~6C
신라	여주 상리 고분 1호분, 8호분	석제 두침	6	Ω형	6C 중반
신라	경주 서악동 석침총	석제 두침	1	Ω형	6C 후반~7C
		석제 족좌	1	⊏형(3매)	

¹⁸ 山西省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3(1972), p. 24;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沙嶺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10(2006), pp. 4-24.

¹⁹ 原田淑人 外, 『樂浪：五官掾王吁の墳墓』(刀江書院, 1930), pp. 58-59.

신라	경주 서악동 석실분	석제 두침	2	ㄷ형	6C후반~7C
		석제 족좌	1	-	
신라	전 경주 출토	석제 족좌	1	W자형	6~7C
신라	경주 충효동 7호분	석제 두침	1	ㄷ형	6C후반~7C
		석제 족좌	2	ㄷ형	
신라	경주 노서동 137호분 (쌍상층)	석제 두침	1	ㄷ형(2매)	6C중반~7C
		석제 족좌	1	(2매)	
신라	경주 용강동 고분	석제 두침	1	ㄷ형	6C후반~7C
		석제 족좌	1	ㄷ형	
가야	전 가야 지방	도제 두침	1	반타원형2	5~6C
고구려	평양 토포리대총	석제 두침	1	ㄷ형	5C 경
고구려	출토지 미상	도제 두침	1	반타원형2	297년
고구려	집안 마선묘구 M117호	도제 두침	1	ㄷ형	6~7C

표 3 삼국시대 두침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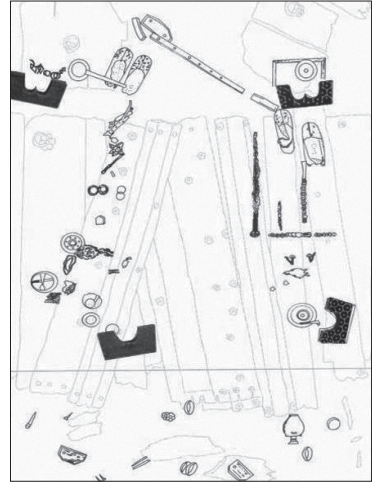
흙	반타원형-2	ㄷ형	U자형
특징	머리 윗부분이 둥근 흙의 형태	어깨부분까지 흙이 있는 형태	흙이 깊은 형태
형태			

과 족좌는 관대 위에서 목관재 및 여러 부장품과 함께 출토되었다(도 6).²⁰ 왕의 두침은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3점은 표면장식은 떨어졌지만 형태는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왕과 왕비 모두 두침과 족좌의 출토 위치가 같은 방향이며 두침 주변에는 관식과 귀걸이, 족좌 주변에는 금동 식리가 가까운 위치에서 출토되어 실제로 머리와 다리를 괴었던 채로 부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²⁰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1974), pp. 44-45;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신보고서』I(2009), pp. 8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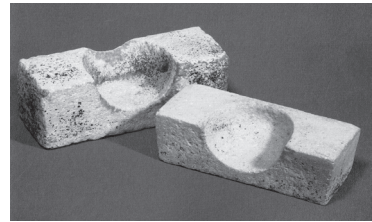
다만 왕의 식리가 족좌보다 앞쪽, 즉 두침과 족좌 사이에서 발견되어 식리를 착장하고 족좌를 사용하여 앉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반타원형보다 홈이 조금 더 깊은 반타원형-2형은 머리 모양에 맞도록 윗부분을 둥글게 파고 타원형의 홈을 만든 형태이다. 백제의 나주 복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석침이 이 유형에 속한다(도 7).²¹ 복암리 고분군 출토 석침은 무령왕릉 두침보다 홈이 더 완만하고 깊이가 얕으며 뒷면을 완전히 파내지 않고 2/3 정도를 남겨두었다. 복암리 고분은 4~5세기까지 웅관 고분 문화가 전개되다가 6세기 이후 백제 중앙의 묘제인 횡혈식 석실이 조영된 곳이다.²² 복암리 고분군에서 석침은 횡혈식 석실분의 도입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다.



도 6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 출토 위치

세 번째 유형은 두침에 머리를 두는 부분뿐만 아니라 목 또는 어깨부분까지 홈을 판 Ω형이다. 고구려에서는 중국 集安 麻綰墓區 M117호묘에서 출토된 <도침>이 이와 같은 형태이다(도 8).²³ 또한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석침도 이 유형에 속한다(도 9). 경주지역에서는 적석목곽분이 횡혈식 석실분으로 바뀌는 6세기 전반기부터 석제로 만든 두침과 족좌가 등장한다.²⁴ 경주 서악동 고분군, 충효동 고분, 노서동 고분 등에서 출토된 예가 알려져 있다. 한편 신라의 석제 족좌는 발을 두는 부분을 사각형의 홈으로 판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W자형 구조를 가



도 7 <석제두침> 2점, 6세기 중반-7세기 초, 나주 복암리 3호분 제7호 횡혈식 석실묘 출토, (右)32.1×13.0×11.0cm, 국립문화재연구소

²¹ 전남대학교박물관, 『伏岩里古墳群』(1999), p. 23; 국립문화재연구소, 『羅州伏岩里 3號墳』(2001), pp. 194-313.

²² 복암리 고분에서는 6관등 奈率 이상만이 착용할 수 있는 은화관식이 출토되어 6세기에 이 지역이 백제에 병합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복암리 고분을 포함한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에 대한 문헌사학계와 고고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보』 11(2014), pp.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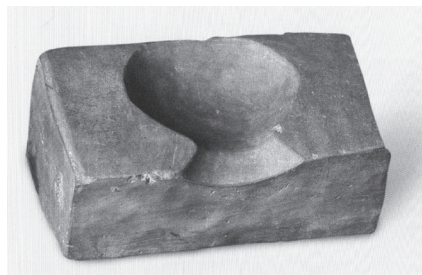
²³ 麻綰墓區 출토품 외에 고구려 두침에 대해서는 윤근일, 「경주지역 출토 석침에 관한 소고」, 『文化財』 25(1992), pp. 16-25; 김대환, 「三國時代의 陶枕 研究: 高句麗 名文陶枕을 中心으로」, 『백산학보』 71(2005), pp. 33-75.

²⁴ 신라 석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황보경, 「신라 고분 출토 석침(石枕) 고찰: 중부지방과 경주를 중심으로」, 『고고학』 12(2013), pp. 59-84 참조.

진 무령왕릉 출토품에 비해 매우 간략화 된 형태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경주지역의 석제 두침과 족좌는 시신을 안치했던 屍床 위에서 사용된 예가 많다. 이는 적석목곽분 단계에서 사용했던 목관을 석실분의 채용과 함께 사용하지 않게 된 점과 관련이 있다.²⁵ 즉,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상 위에 시신을 바로 안치하면서 격을 높이는 의미로서 두침과 족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⁶ 얇은 홈이 머리 부분 뿐만 아니라 어깨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는 신라의 석제 두침은 시신을 누일 고정된 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경우에도 북암리 3호분 가운데 석침이 출토된 6호, 7호, 12호묘에서는 관뿔이 출토되지 않아 신라와 같이 목관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석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무령왕릉을 제외한 6세기 신라와 백제 지역에서 두침과 족좌는 주로 석제로 제작하였으며 홈의 깊이가 얇은 형태이다. 또한 대체로 목관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왕과 왕비의 목관과 함께 출토되었다. 더욱이 무령왕릉 출토 목관은 수종 조사결과 일본에만 서식하는 고급 수종인 金松으로 제작된 것이 밝혀졌다.²⁷ 목관의 내외면은 모두 漆을 하였고 화형장식이 있는 棺釘을 사용하였으며 외면에는 관고리를 달았다. 목관의 棺蓋는 왕은 5매, 왕비는 3매의 관재를 사용하여 중심천관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경사면을 둔 지붕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무덤내부의 잔류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漆을 한 목제 시상도 발견되었다.²⁸ 이와 같이 최상의 목관



도 8 <도제두침>, 4세기, 集安 麻綰墓區 M117號墓 출토, 24.4×14.1×8.3cm, 集安市博物館



도 9 <석제두침과 족좌>, 6세기 후반~7세기,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42.5~44cm, 국립경주박물관

²⁵ 경주에서 횡혈식 석실분이 축조되면서 곧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두침과 족좌를 사용하여 시상 위에 피장자의 시신을 바로 안치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최병현,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 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2012), p. 112.

²⁶ 차순철,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분의 시상(屍床)구조 변화 연구」, 『慶州文化研究』 9 (2007), p. 96.

²⁷ 박상진·강애경, 「무령왕릉출토 관재의 수종」,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23(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241-247.

²⁸ 윤태영, 「무령왕릉 출토 목관 부속구-새로 확인된 시상을 중심으로」, 『무령왕릉을 격물하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76-181.

과 시상이 있었음에도 두침과 족좌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묘지의 내용에서 확인하였듯이 무령왕과 왕비는 27개월 간 빈장을 행하였다. 이때 빈장은 지금의 왕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러졌다. 빈전 장소로 이동할 때 運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뼈를 추린 후 목관에 안치하는 洗胃葬, 처음부터 목관 내에 시신을 납입한 채 빈을 치루고 목관 채 운구하는 방법, 고분 내에 목관을 먼저 안치한 후 시신만 운반하는 등 운구 방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은 제기되었다.²⁹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묘지에 언급되지 않아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 실마리를 목관의 두침과 족좌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U자형과 W자형의 깊은 홈은 머리와 다리를 끼워야 하는 형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유형의 예와 같이 단순히 시신을 누이는 것보다 고정하는 역할을 위한 것이다. 시신을 고정하기 위한 형태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시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무령왕과 왕비가 빈전에서 빈장을 치룬 것을 상기하면, 두침과 족좌는 빈전으로 이동시 목관 내부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빈장을 치루고 시신만 왕릉으로 옮겨 미리 준비한 목관에 안치하고자 했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두침과 족좌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빈장 후 새로운 목관에 안치하면서 두침과 족좌를 함께 수습하여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출토위치, 형태상 특징으로 본다면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은 처음부터 목관 내에 안치되어 빈의 기간을 치루고 목관 채 왕릉으로 운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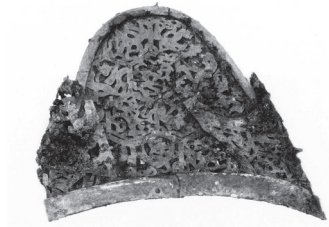
앞서 무령왕릉의 긴 빈장기간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되 시신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예를 다하고자 했던 백제인의 내세관이 반영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두침과 족좌를 사용하여 시신을 고정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시신을 보호하여 훼손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두침과 족좌는 빈장의례와 마찬가지로 백제인들의 내세관을 반영하여 제작한 장례용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면의 다양한 도상과 장식 요소는 시신 보호라는 실질적인 용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장자의 내세를 위한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아보겠다.

IV.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장식 문양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크기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표면 장식과 문양 구성에서

²⁹ 권요영, 앞의 논문(2000), pp. 15-16.

차이를 보인다.³⁰ 무령왕의 두침과 족좌는 표면에 黑漆을 하고 그 위에 얇은 금판으로 육각문을 만들고 중앙에 금제 육화형 장식을 부착하였다. 무령왕보다 약 3년 후에 장례가 치러진 무령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표면을 붉은색 안료인 辰砂로 채색하였다. 두침은 금박으로 육각문을 구획하고 연화문, 천인, 봉황, 마카라 등 여러 도상을 그렸다. 족좌는 테두리에 금박을 두르고 연화문과 팔메트를 그렸다. 또한 왕비 두침과 족좌의 상단에는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이 부가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육각문과 연화화생 도상을 비롯하여 조형, 수지형장식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을 직접 고되었던 부장품인 만큼 그 의미를 통해 내세관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 10 <금동관모>, 5세기 전반, 서산 부장리 5호분 출토, 15.9×17.5cm,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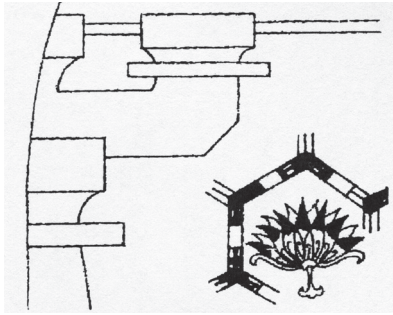
1. 육각문과 연화화생 도상

먼저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육각문과 연화화생 도상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육각문은 육각형의 기하학 문양으로 거북의 등껍질에서 보이는 문양과 유사하여 龜甲文으로도 불린다.³¹ 육각문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대부분 연속된 육각문 내부에 인물, 동물, 식물 등의 문양을 배치하는 구성을 보인다. 서아시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전해진 육각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구성과 의미로 변화하였다. 백제에서는 한성기인 5세기 전반부터 金銅冠帽, 金銅飾履, 鞍橋 등에서 투각기법으로 만든 연속 육각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도 10).³² 이러한 금속공예품들은 권력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위세품으로, 육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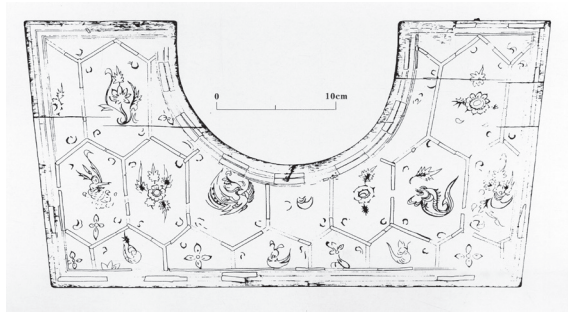
³⁰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에 대한 보존과학 측면의 조사도 이루어졌다. 목재의 수종은 왕의 두침은 주목, 왕비의 두침은 향나무속이다. 김수철, 「무령왕릉 왕 두침 수종조사」, 『백제 사마왕』(국립공주박물관, 2001), pp. 217-218; 同著, 「무령왕릉 출토 목재의 수종」, 『무령왕릉을 격물하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82-187; 또한 왕의 두침은 목재 표면에 바탕칠이나 직물심 없이 바로 옷칠을 한 木心漆器이고 왕비 두침과 족좌는 朱漆이 아닌 진사로 채색한 것이다. 이용희·김경수, 「무령왕릉 출토 옷칠기법 조사」, 『백제사마왕』(국립중앙박물관, 2001), pp. 215-216; 이용희, 「무령왕릉 발굴 목·칠기유물의 옷칠 및 채색기법」, 『무령왕릉을 격물하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88-193.

³¹ 육각문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송란, 「신라 고분출토 공예품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연원-식리층 금동식리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3(1994), pp. 43-75; 이연재, 「飾履塚 출토 金銅飾履의 문양 연구」, 『강좌미술사』 27(2006), pp. 144-153; 윤정아, 「三國時代 六角文 研究」(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pp. 4-20.

³² 백제 육각문 문양 구성과 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귀영, 「백제 귀갑문 고찰」, 『신라사학보』 18(2010), pp. 267-317; 이송란, 「백제 한성시기 금속공예의 투각 연속육각문의 수용과 전개」, 『백제문화』 47(2012), pp. 205-233.



도 11 귀갑충 현실, 5세기 중반, 集安 山城子村 (전호태,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的 來世觀』, 1989, 도 21)



도 12 무령왕비 두침 정면 도면(『귀갑문과 귀면문』, 국립공주박물관, 1990, p.23)

내부는 용, 봉황과 같이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상서로운 의미를 가진 천상세계의 구성원들이 장식되는 공간이다.³³ 그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무령왕 두침과 족좌의 육화형 화문은 단순한 장식적 의미가 아닌 연화문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 두침, 족좌와 같이 육각문 내부를 연화문으로 장식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5세기 후반의 귀갑충과 천왕지신충 현실 내부에 그려진 예가 있다(도 11).³⁴ 여기서 육각문은 동물문, 식물문과 결합하여 천계를 상징했던 것과 달리 연화가 탄생하는 곳이자 만물의 근원인 물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불국토에서의 연화화생을 염원하는 연화문과 함께 나타난 육각문의 의미는 만물의 근원인 물이 가진 상징성과 더욱 부합한다. 무령왕 두침과 족좌의 육각문도 관, 식리 등에 나타난 천계의 의미가 아닌 물의 의미로 볼 수 있다.³⁵ 무령왕비의 두침에서는 천인이 탄생하는 연화화생의 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생명이 탄생하는 물을 상징하는 육각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령왕비 두침의 배면과 양측면에는 여러 종류의 연화문이 나타나고 정면에는 연화문뿐만

³³ 용, 봉황, 괴수, 인면조신 등의 문양은 漢代 화상석이나 박산향로의 주요 장식 소재들이다. 특히 박산향로에서는 天界를 상징하는 산악문과 함께 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다. 박경은, 『博山香爐의 昇仙圖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25·226(2000), pp. 77-83; 전연의 안교에서 神獸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산악문에서 육각문으로 대체되어 육각문으로 구획된 곳이 천계를 상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연재, 앞의 논문, pp. 142-147.

³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연화문은 시기적으로 형태와 의미가 변화한다. 5세기 전반 현실 천정석을 장식하였던 연화문은 5세기 후반이 되면 천장부뿐만 아니라 현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현실전체를 연화세계로 꾸며 적극적으로 정도왕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호태,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的 來世觀』, 『韓國史論』 21(1989), pp. 40-41.

³⁵ 두침과 족좌의 육각문을 육각수문이라 명명하고 물이 육각의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육각형으로 표현하여 만물이 생성하는 도상들을 표현하였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강우방, 앞의 논문, p. 149.

아니라 천인, 봉황, 마카라가 그려져 있다(도 12). 정면의 연화문은 정면형, 측면형, 운기형으로 나눌 수 있다(표 4). 3가지 모두 1~5개의 팔메트와 결합한 형태이다. 정면 육각문의 2번째단에는 연화문과 천인, 봉황, 마카라가 번갈아 가며 배치되었다. 천인은 머리가 짧은 동자형이고 상반신은 裸身이며 어깨 뒤로 天衣가 날리고 있다. 양팔은 왼쪽을 향하고 하반신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봉황은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입에 팔메트 줄기를 물고 있다. 마카라는 등지느러미가 가시처럼 뾰족한 것이 특징이며 입에는 봉황과 마찬가지로 팔메트를 물고 있다.

무령왕비 두침 정면의 도상은 吉村恰(요시무라 레이)가 지적한 비와 같이 연화화생을 통한 천인탄생의 과정이다.³⁶ 화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四生인 卵生·胎生·濕生·化生 가운데 하나로 無에서 홀연히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이다.³⁷ 그 중 불교에서 빛의 상징이자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蓮華와 화생을 결합시킨 蓮華化生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운기형 연화문으로 이를 變化生이라 지칭하였다. 변화생은 화생으로 변화하는 것 혹은 변화하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무령왕비 두침에서는 '4엽 화문 → 변화생 → 천인'으로 화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도 13).

이와 같은 천인탄생 도상은 중국 남북조시대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이 도상은 5세기 후반 남조에서 창안된 것으로 남조 황제릉인 江蘇省 丹陽市 建山 金家村墓, 江蘇省 丹陽市 胡橋 吳家村墓, 河南省 登隰縣 學莊村 畫像塼墓 등에서 보이기 시작한다.³⁸ 金家村墓의 화상전 가운데 〈羽人戲虎圖〉를 살펴보면 仙人이 호랑이를 이끌고 가는 모습 주변에 왕비 두침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정면형 연화문, 운기형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호랑이의 몸체 위쪽으로 천의를 휘날

표 4 무령왕비 두침 정면의 연화문

		
정면형	측면형	운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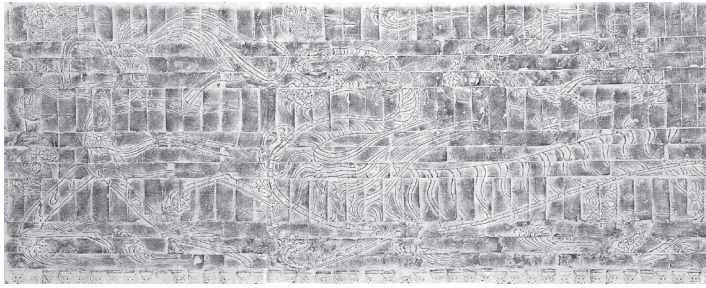


도 13 요시무라 레이(吉村恰)가 제시한 무령왕비 두침의 천인탄생 과정(吉村恰, 『中國佛教圖像の研究』, 1983, 삽도 111)

36 吉村恰, 앞의 논문(1977), pp. 34-42.

37 『增壹阿含經』卷17 “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爾時世尊告諸比丘 有此四生 云何爲四 所謂卵生胎生濕生化生.”

38 제송희, 「고구려 미술의 팔메트(palmette) 문양 고찰」, 『미술사연구』 24(2010), pp. 22-27.



도 14 〈羽人戲虎圖〉(탁본, 南齊(5세기후반), 江蘇省丹陽市建山金家村墓, 240×94cm, 南京博物院)



도 15 마카라, 무령왕비 두침 세부

리고 있는 천인이 등장한다(도 14).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연화가 변화생을 거쳐 천인으로 화생한 것이다.³⁹ 鄧縣 畫像 塼墓에서도 ‘天人’ 명문과 함께 천인탄생 도상이 나타난다. 이 도상은 6세기 초에 북조에도 전해져 龍門石窟 古陽洞 左壁 下層 佛龕 주변, 鞏縣石窟 第3窟 方柱 南面 佛龕 상단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⁰

무령왕비 두침의 천인탄생 도상은 팔메트와 결합한 정면형 연화문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남조에서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남조 황제릉과 귀족묘의 천인탄생 도상은 〈獅子圖〉, 〈羽人戲龍圖〉, 〈竹林七賢과 榮啓期〉 등 도가 사상을 반영한 여러 장면과 함께 나타난다. 연화문, 팔메트, 천인은 불교적 모티프이지만 남조에서는 본래의 의미보다 길상적 의미를 표현한 것에 가깝다.⁴¹ 또한 중심문양의 주변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무령왕비 두침의 연화문과 천인탄생 도상은 중심 문양으로서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육각문과 결합한 구성도 현재로서는 백제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물을 상징하는 육각문과 함께 연화화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천인탄생 도상 외에도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요소로서 마카라와 팔메트도 주목된다. 왕비 두침 정면의 육각문 내 마카라는 본래 魚龍으로 파악하였던 도상이다(도 15).⁴² 마카라는 고대

³⁹ 吉村怜, 「南北朝佛教樣式史論」, 『中國佛教圖像の研究』(東方書店, 1983), pp. 182-188.

⁴⁰ 6세기 초, 남조의 여러 가지 문양 요소들이 북조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한 내용은 Susan Bush, “Thunder Monsters, Auspicious Animals, and Floral Ornament in Early Sixth-Century China,” *Ars Orientalis* Vol. 10(1975), pp. 19-33 참조.

⁴¹ Annette L. Juliano, “Teng-Hsien: An Important Six Dynasties Tomb,” *Artibus Asiae: Supplementum* Vol. 37(1980), p. 74.

⁴² 6세기 백제에 마카라 도상이 전해진 기록이나 무령왕릉 외에 다른 예는 찾아볼 수 없어 도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시기는 다르지만 日本 法隆寺에 소장된 聖曼陀羅 尊 黃道十二宮에서 十宮인 摩竭宮 자리에 ‘磨竭’이라는 명문과 함께 그려진 마카라가 두침의 문양과 흡사함을 지적하였다. 장석오, 앞의 논문(2013), pp. 234-235.



도 16 <마카라> 기원전
2세기, 산치2탑
W5내면(동면)하부,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도 17 팔메트, 무령왕비 두침 세부
(화살표 필자표시)

인도에서 나타나는 악어, 코끼리, 물고기의 특징이 합성된 상상의 동물로 大洋에 속하고 물고기 중의 우두머리이다.⁴³ 마카라는 산치 2탑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기 스투파 장엄에서 성스러운 연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도 16). 이후 연꽃을 창조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마카라 도상은 안드라 왕조 아마라바티에서 출토된 예가 많다. 두침의 마카라는 꽃과 줄기를 창조하는 아마라바티의 도상과 달리 간략한 팔메트를 물고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무령왕비 두침에서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카라 도상이 남북조시대에 알려진 예가 없어 동점 과정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백제에서 대양을 상징하는 마카라와 물의 의미가 강조된 육각문과 결합한 구성이 나타나는 점은 흥미롭다.⁴⁴

팔메트는 연화와 같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왕비 족좌 측면에는 좌우로 퍼져나가고 있는 반팔메트가 있으며, 왕비 두침의 U자형 홈에는 붉은색 안료 2줄의 넝쿨형 팔메트를 그렸다(도 17). 두침의 넝쿨형 팔메트는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의 구연부에서 보이는 넝쿨형태의 문양대와 유사하다.⁴⁵ 왕비의 머리가 놓이는 곳에 연속적인 팔메트 문양을 배치한 것은

⁴³ 安藤佳香, 「荒海の怒れる魚-怪魚マカラ考-」, 『佛教莊嚴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p. 257.

⁴⁴ 중국에서 육각문 안에 마카라를 장식한 것은 隋代의 예가 가장 이른다. 陝西省 潼關稅村에서 발굴된 隋代壁畫墓(600~604)에서 출토된 석관 덮개 상단의 양쪽 가장자리의 반육각문에 나타난 마카라는 여러 서수들과 함께 천계의 일원으로 등장한다. 陝西省考古研究院, 「陝西潼關稅村隋代壁畫墓線刻石棺」, 『考古与文物』3(2008), pp. 35-37.

⁴⁵ 동탁은잔의 기형과 문양에 대한 내용은 주경미, 「무령왕릉출토 동탁은잔의 연구」,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보고서 II』(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51-86 참조.

무한한 생명력의 의미로 왕과 왕비 관식에 나타난 팔메트의 의미와 상통한다.⁴⁶

이제까지 살펴본 무령왕과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양 요소들은 각각 다른 시기와 경로를 통해 백제에 유입된 것이다. 장례용구인 두침과 족좌에 피장자의 내세를 위해 여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탕에는 주로 투각기법을 사용한 금속공예품에서 보이던 육각문을 목제 두침과 족좌에 응용하였다. 또한 육각문과 천인탄생 도상을 결합하고 마카라와 팔메트 등의 표현을 더한 것은 각 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령왕과 왕비의 극락왕생을 위해 만들어진 백제적인 문양 구성이라 할 수 있다.

2. 鳥形장식과 樹枝形장식



도 18 〈鳥形裝飾〉,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육각문 문양구성과 더불어 살펴볼 것은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상단의 장식이다. 육각문과 연화문으로만 장식되었던 무령왕과 달리 왕비 두침의 상단에는 무언가를 장식했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족좌에는 구멍이 뚫려있었다. 발굴 당시에는 장식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후 복원 과정에서 자리를 찾게 되었다. 두침에는 鳥形장식, 족좌에는 樹枝形장식

이 부가되었는데 고대인들의 새와 나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침의 조형장식은 頭部에서부터 가슴 윗부분까지 조각하였다(도 18). 목이 S자로 급격하게 굽어있으며 눈과 귀는 두드러지게 튀어나와있고 머리에는 뿔이 보인다. 표면에는 주철, 눈과 귀 주위에는 금박 장식이 남아있다. 두침 상단의 瑞獸장식은 앞서 만성한묘 출토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새는 고대로부터 喪葬과 관련하여서 死者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⁷ 백제에서도 『三國史記』, 『北史』 등에 의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새가 등장하고 있어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전달자로서의 의미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⁸ 이와 같은 의미는 冠飾에 주로 나타나 〈공주 수촌리 II-1호 출토 금동관〉, 〈공주 수촌

⁴⁶ 이송란, 「백제 무령왕과 왕비관의 복원시론과 도상」,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보고서 II』(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143-182.

⁴⁷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 관념과 제의」, 『역사와 현실』 32(1999), pp. 113-118.

⁴⁸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始祖溫祚王 二十年.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異鳥五來翔.”;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百濟傳,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리 Ⅱ-4호 출토 금동관)의 帽冠 전면과 후면에 활짝 편 새 날개 모양의 立飾이 부착되어 있다.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새의 종류는 닭, 오리, 봉황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특정한 종류를 가리키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두침의 조형장식은 정면 육각문에서 보이는 봉황문, <동탁은잔>의 봉황의 모습과 유사하고 입에 청동보주를 물고 있어 봉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장식이 놓여있었던 양쪽 상면에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 각각 甲, 乙이 쓰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봉황의 암수를 구별하여 정해진 위치에 두려는 목적으로 보기도 한다.⁴⁹ 봉황의 머리 방향은 현재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복원되었는데, 漢代 두침의 경우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 방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족좌의 수지형장식은 철제 심에 마름모꼴 금제장식이 달린 형태이다(도 19). 나뭇가지에 달린 잎 혹은 대나무같이 줄기에 잎이 달린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수지형장식을 세우는 족좌의 상면에는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이는 왕비 두침의 연화화생 도상에 나타난 연화의 의미와 함께 백제의 전통적인 樹木信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 사회에서 수목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世界樹, 즉 宇宙樹의 의미를 갖는다. 단군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神檀樹아래에서 神市를 열었다는 내용은 고대인들의 수목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⁰ 백제에서는 온갖 병난을 물리치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 <七支刀>를 통해 수목 숭배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의 帶冠 전면과 양측면에는 줄기와 가지로 이루어진 수지형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늘과 지상을 오가는 특별한 존재인 '새'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목'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념은 백제 금동관의 상징적 의미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⁵¹ 왕비 두침과 족좌 상



도 19 <樹枝形裝飾>,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49 이상수·안병찬, 「백제 무령왕비 나무베개에 쓰여진 명문“甲”“乙”에 대하여」, 『고고학지』 2(1991), pp. 295-301

50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古朝鮮王儉朝鮮. “...雄率徒三千降於 太白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檀樹下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 신단수 아래는 곧 山神, 樹神이 깃들어 있는 숲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신종원, 「단군신화에서 보이는 樹木信仰」, 『한국사학사학보』 7(2003), p. 9.

51 노중국, 「한국고대사회에서 의기와 위세품이 보여주는 상징성」, 『제명사학』 21(2010), pp. 19-25; 이귀영, 「백제 관상 징계계의 변천양상」, 『백제문화』 46(2012), pp. 69-76.

단의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 역시 피장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하늘과 이어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벽사와 승선의 의미는 무령왕릉 출토품 가운데 <동경> 및 <진묘수>와도 상통한다. <方格規矩神獸文鏡>, <宜子孫獸大鏡>, <獸文鏡> 등 3점의 동경은 벽사와 주술적 기능을 가진 神物이며 도교에서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法器였다.⁵² 또한 연도에서 출토된 <진묘수>는 사악한 기운과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神獸로서 鎮墓와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의 영혼을 승선시키는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⁵³ 무령왕비 두침 상단의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은 시신을 직접 고정하는 기물에 벽사와 승선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신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세로 무사히 가길 바라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침과 족좌의 문양은 불교의 ‘화생’ 도상을 통해 왕과 왕비가 극락왕생하여 불국토에 이르기를 염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명문자료는 아니지만 6세기 초 백제인들에게 불교적 내세관이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령왕 시기 불교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왕과 왕비의 관식에서 연화문과 팔메트가 결합한 구성이 보이고 沙門 發正이 중국으로 건너가 30여년 간 있다가 귀국하는 길에 관세음의 응험이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한 기록이 있다.⁵⁴ 국내외적으로 안정되었던 무령왕 치세기간에는 불교 문화도 점차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래를 주재하였던 성왕 시기의 불교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지배이념으로 불교를 내세웠고 무령왕비의 빈장기간인 527년에 大通寺를 창건하였다. 대통사 창건이유에 대해서는 불교를 숭상했던 梁武帝를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대통사의 창건을 통해 지배이념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령왕과 왕비를 추복하고 민심을 모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⁵⁴ 한편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은 고대인들의 새와 수목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도교적 성격의 유물들과 같이 벽사와 승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무령왕과 성왕대 초기 불교적 관념이 확산된 이후에도 전통적인 사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왕과 왕비를 무사히 내세로 인도하는 동시에 불국토에서 화생하기를 바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두침과 족좌가 백제적으로 변용한 유교적 상장례에서 사용한 장례용구임

52 김영삼, 「백제문화의 도교적요소」, 『韓國古代史研究』 64(2011), pp. 391-394.

53 임영애, 「중국고분 속 진묘수의 양상과 불교적 변형」, 『미술사논단』 25(2007), pp. 40-44.

54 『觀世音應驗記』, 『백제사자료원문집(I)-한국편』(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p. 678.

55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獸羈滅身, 又於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於熊川州, 名大通寺. (熊川卽公州也, 時屬新羅故也. 然恐非也, 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 始創興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 장수남, 「백제 성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과정」, 『韓國上古史學報』 75(2012), pp. 290-291.

을 상기하면 유교와 불교, 도교의 요소가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에는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음양오행, 천문, 의학 등 광범위한 사상적 기반이 있었으며 서로 배척하지 않았다.⁵⁶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이러한 백제의 다양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작한 무령왕과 왕비의 장례용구이다.

V. 맺음말

백제는 475년에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으로 천도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이 모두 귀족세력에게 살해당하거나 단명하는 등 왕권과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 시기에 무령왕은 원숙한 4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무령왕은 중앙집권을 꾀하고 지방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위해 중국 남조 양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무령왕릉의 묘제는 의도적으로 도입한 전축분이고 그 크기와 규모 또한 남조묘를 따르고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중국 유물도 다수 출토되어 백제의 대외교류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남조의 영향을 받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를 단순한 이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상장의례의 경우 중국의 상장제를 도입하되 백제적으로 변용한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 또한 백제의 상장의례와 내세관을 반영한 장례용 기물로서 주목하였다.

무령왕과 왕비의 빈장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의 3년상의 기간을 따르면서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묘에 매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백제인들의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는 중국이나 삼국시대의 다른 예들과 달리 깊은 흙을 가진 형태로 빈전으로 운구하는 과정 중 목관 내에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빈장의례에 나타난 백제의 내세관을 반영하여 제작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에는 공통적으로 육각문과 연화문을 장식하였다. 특히 무령왕비 두침의 육각문과 연화화생 도상, 마카라와 팔메트는 무령왕과 왕비가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상단에는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땅을

⁵⁶ 조재훈, 「무령왕릉과 백제의 종교」, 『백제무령왕릉』(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pp. 351-364; 『백제문화사 대계 연구총서 13-백제의 제의와 종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김영신, 「웅진, 사비시기 백제 지배층의 사상적 지향-六朝士大夫와의 비교를 통하여-」, 『백제문화』46(2012), pp. 205-239.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온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이 부가된 점도 살펴보았다. 두침과 족좌의 장식 문양은 시신을 보호하고 내세로 인도하는 동시에 불국토에서 화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출된 이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 불, 도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무령왕릉의 내세관 및 여러 유물들과 같이 三敎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다.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당시 백제인들의 다양한 사상적 측면을 바탕으로 내세관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한 장례용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제어(key words)_무령왕릉(武寧王陵, tomb of King Muryeong), 상장의례(喪葬儀禮, funeral rituals), 두침(頭枕, headrest), 내세관(來世觀, view of afterlife), 유불도(儒佛道,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투고일 2015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8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20일 ■

참고문헌

1. 사료·경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說文解字』
『北史』
『增壹阿含經』

2. 단행본

국립공주박물관, 『백제의 제사유적 정지산』, 1999.
백제문화개발연구원, 『백제사자료원문집(I)-한국편』, 198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3-백제의 제의와 종교』, 200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吉村伶, 『中國佛教圖像の研究』, 東京: 東方書店, 1983.
安勝佳香, 『佛教莊嚴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和田萃, 『日本古代の儀禮の祭祀・信仰』上, 塙書房, 1995.
Wu Hu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Understanding Chinese Tomb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3. 논문

강우방,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영기화생의 조형해석과 도상해석」, 『무령왕릉을 격물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46-175.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 관념과 제의」, 『역사와 현실』32(1999), pp. 93-122.
_____,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20(2000), pp. 5-43.
_____, 「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백제문화』31(2002), pp. 51-63.
김길식, 「氷庫를 통해 본 公州 정지산유적의 성격」, 『고고학지』12(2001), pp. 49-75.

- 김대환, 「三國時代의 陶枕 研究: 高句麗 名文陶枕을 中心으로」, 『백산학보』71(2005), pp. 33-75.
- 김수철, 「무령왕릉 왕 두침 수중조사」, 『백제 사마왕』, 국립공주박물관, 2001, pp. 217-218.
- _____, 「무령왕릉 출토 목재의 수종」, 『무령왕릉을 격물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82-187.
- 김영심, 「백제문화의 도교적 요소」, 『韓國古代史研究』64(2011), pp. 363-403.
- _____, 「무령왕릉에 구현된 도교적 세계관」, 『韓國思想史學』40(2012), pp. 211-251.
- _____, 「웅진, 사비시기 백제 지배층의 사상적 지향—六朝士大夫와의 비교를 통하여—」, 『백제문화』46(2012), pp. 205-239.
- 노중국, 「한국고대사회에서 의기(義器)와 위세품(威勢品)이 보여주는 상징성」, 『계명사학』21(2010), pp. 1-33.
- 박경은, 「博山香爐의 昇仙圖像 연구」, 『미술사학연구』225·226(2000), pp. 67-101.
- 박상진·강애경, 「무령왕릉출토 관재의 수종」,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23,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241-247.
- 박중환, 「금석문을 통해서 본 백제인의 내세관」, 『역사학연구』29(2007), pp. 27-56.
- 샤오 레이(邵磊), 「마갈문의 동진과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백제 무령왕비 목침에 그려진 어룡문의 기원에 대하여—」, 『한성에서 웅진으로: 특별전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101-143.
- 신종원, 「단군신화에서 보이는 樹木信仰」, 『한국사학사학보』7(2003), pp. 5-22.
- 윤근일, 「경주지역 출토 石枕에 관한 小考」, 『문화재』25(1992), pp. 16-25.
- 윤정아, 「三國時代 六角文 研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윤태영, 「무령왕릉 출토 목관 부속구—새로 확인된 시상을 중심으로」, 『무령왕릉을 격물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76-181.
- 이귀영, 「백제 귀감문 고찰」, 『신라사학보』18(2010), pp. 267-317.
- _____, 「백제 관 상징체계의 변천양상」, 『百濟文化』46(2012), pp. 67-101.
- 이상수·안병찬, 「백제 무령왕비 나무베개에 쓰여진 명문 ‘甲’ ‘乙’에 대하여」, 『고고학지』2(1990), pp. 295-301.
- 이송란, 「신라 고분출토 공예품에 보이는 외래요소의 연원—식리총 금동식리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3(1994), pp. 43-75.
- _____, 「백제 무령왕과 왕비관의 복원시론과 도상」,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보고서 II』, 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143-182.
- _____, 「백제 한성시기 금속공예의 투각 연속육각문의 수용과 전개」, 『百濟文化』47(2012), pp. 205-233.
- 이연재, 「飾履塚 출토 金銅飾履의 문양 연구」, 『강좌미술사』27(2006), pp. 129-156.
- 이용희·김경수, 「무령왕릉출토 옷칠기법 조사」, 『백제사마왕』, 국립중앙박물관, 2001, pp. 215-216.
- 이용희, 「무령왕릉 발굴 목·칠기유물의 옷칠 및 채색기법」, 『무령왕릉을 격물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pp. 188-193.
- 이한상, 「발굴에서 해석까지—정지산 유적의 사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pp. 598-622.

- 임영애, 「중국고분 속 진묘수의 양상과 불교적 변형」, 『미술사논단』 25(2007), pp. 37-65.
-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보』 11(2014), pp. 5-32.
- 장석오, 「무령왕비 두침에 그려진 어룡문의 실체」, 『百濟文化』 49(2013), pp. 213-242.
- 장수남, 「백제 성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과정」, 『韓國上古史學報』 75(2012), pp. 277-301.
- 장인성, 「무령왕릉 묘지를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百濟研究』 32(2000), pp. 161-171.
- 저우위싱(周裕興),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무령왕릉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40(2009), pp. 125-154.
- 전호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내세관」, 『한국사론』 21(1989), pp. 3-71.
- 제송희, 「고구려 미술의 팔메트(palmette) 문양 고찰」, 『미술사연구』 24(2010), pp. 7-37.
- 조경철, 「백제 왕실의 3년상—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5(2009), pp. 105-139.
- 조재훈, 「무령왕릉과 백제의 종교」, 『백제무령왕릉』,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pp. 351-364.
- 주경미, 「무령왕릉출토 동탁은잔의 연구」,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보고서 II』, 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51-86.
- 진홍섭, 「무령왕릉 발견 두침과 족좌」, 『百濟研究』 6(1975), pp. 169-177.
- 차순철,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분의 시상(屍床)구조변화 연구」, 『慶州文化研究』 9(2007), pp. 71-100.
- 최병현, 「경주 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2012), pp. 80-129.
- 황보경, 「신라 고분 출토 석침(石枕) 고찰: 중부지방과 경주를 중심으로」, 『고고학』 12(2013), pp. 59-84.
- 吉村怜, 「百濟武寧王妃木枕に描かれた佛教圖像について」, 『美術史研究』 14(1977), pp. 29-47.
- 窪添慶文, 「中國の喪葬儀禮」, 『日本古代史講座』 9, 學生社, 1982, pp. 77-107.
-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少嶺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2006. 10), pp. 4-24.
- 山西省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1972. 3), pp. 20-33.
- 陝西省考古研究院, 「陝西潼關稅村隋代壁畫墓線刻石棺」, 『考古与文物』(2008. 3), pp. 33-47.
- 王永波·劉曉燕, 「漢代王侯的陵寢用枕」, 『東南文化』 122(1998), pp. 99-105.
- Bush, Susan, “Thunder Monsters, Auspicious Animals, and Floral Ornament in Early Sixth-Century China,” *Ars Orientalis* vol. 10(1975), pp. 19-33.
- Juliano, Annette, “Teng-Hsien: An Important Six Dynasties Tomb,” *Artibus Asiae: Supplementum* Vol. 37(1980), pp. 3-83.

4. 도록·보고서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신보고서』 I,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羅州伏岩里 3號墳』, 200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1974.

전남대학교박물관, 『伏岩里古墳群』, 1999.

東京國立博物館·朝日新聞社 編集, 『中國國寶展』, 東京: 朝日新聞社, 2000.

原田淑人·田澤金吾, 『樂浪: 五官掾王旻の墳墓』, 東京: 東京帝國大學, 1930.

Yang, Xiaoneng. *The golden age of Chinese archaeology*,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1999.

국문초록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합장묘인 무령왕릉에는 목제 두침과 족좌가 부장되었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형태는 중국이나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과 달리 흠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침과 족좌가 부장된 상황, 즉 상장의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 梁과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 무령왕릉의 묘제와 상장의례도 양으로부터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묘지에 따르면 무령왕과 왕비는 사망 후 바로 왕릉에 매장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27개월 간 빈장을 행하였다. 빈장은 死者를 일정기간 동안 모셔두고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백제에서 빈장은 무령왕 이전에도 행해졌지만 27개월로 정해진 것은 중국 유교식 3년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제에서는 중국과 달리 27개월간 상복을 입는 服喪과 빈장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유교의 3년상의 기간을 따르면서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묘에 매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백제인들의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다.

빈장의례를 행할 때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운구의 절차이다. 무령왕릉에는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고급 수종인 금송으로 만든 목관이 부장되었다. 반면 6세기 백제와 신라 지역에서는 황혈식 석실분의 도입과 함께 목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석제 두침과 족좌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무령왕릉에서 최상의 목관이 있었음에도 두침과 족좌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시신을 누이는 용도가 아닌 상장의례의 절차 가운데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깊은 흠은 머리와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빈전으로 운구하는 과정 중 목관 내에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에는 공통적으로 육각문과 연화화생 도상을 장식하였다. 무령왕비 두침에서는 육각문 내에 여러 형태의 연화문과 천인탄생 도상이 나타나고 생명의 근원의 의미를 가진 마카라와 팔메트도 등장한다. 각각의 문양 요소는 다른 시기와 경로를 통해 백제에 전래된 것으로 이와 같은 문양 구성은 백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무령왕과 왕비가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왕비 두침과 족좌의 상단에는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온 鳥形장식과 樹枝形장식이 부가된 점도 주목된다. 조형장식과 수지형장식은 전통적인 새와 수목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도교적 맥락의 유물들과 같이 벽사와 승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침과 족좌가 백제적으로 변용된 유교적 장례에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상기하면 불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적 요소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당시 백제인들의 다양한 사상적 측면을 바탕으로 내세관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한 장례용구이다.

Abstract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Headrests and Footrests Found in the Tomb of King Muryeong of Baekje

Park Suh-young*

Muryeongwangneung, the tomb of King Muryeong and his consort, was found to contain wooden headrests and footrests. Unlike other items excavated from Chinese or Korean tomb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se headrests and footrests feature deep recesses.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n style can be found in the background to the burial of these items, i.e., funerary rites.

King Muryeong came into contact with advanced culture through active exchange with China's Liang dynasty. The burial system and funeral ceremonies associated with Muryeongwangneung, too, featured elements newly introduced from Liang. According to a memorial tablet found in the tomb, the King and queen were not buried immediately after death but underwent a process known as *binjang*(殯葬) in another location for 27 months. *Binjang* is a practice whereby the deceased is left unbur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ceremonies are conducted. *Binjang* were conducted in Baekje before the time of King Muryeong, too, but the 27-month period can be seen as influenced by the Chinese Confucian custom of mourning the deceased for three years. In Baekje, however, unlike China, *binjang* and the wearing of mourning clothes for 27 months took place together. This reflected the Baekje view of the afterlife, which placed importance on observing the three-year Confucian

* Hongik University

mourning period while burying the body in a tomb in a state of intact preservation.

One issue that presented itself with regard to *binjang* rites was the conveyance of the coffin to the burial site. Muryeongwangneung contains wooden coffins made of Japanese umbrella pine (*Sciadopitys verticillata*), a valuable type of tree that grew only in Japan. By contrast, in Baekje and Silla regions in the sixth century, the introduction of stone burial chambers with passage-type entrances led to the abandonment of wooden coffins and the use of stone headrests and footrests. The headrests and footrests in Muryeongwangneung, included in the tomb despite the presence of high quality wooden coffins, were intended not to support the heads and feet of the deceased while at final rest, bu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ertain funerary rites. The deep recesses in the items indicate that their role was to hold the heads and feet of the deceased in place and prevent movement inside the coffin while they were carried to the building known as *binjeon* (殯殿) in which their bodies were laid before burial.

Both the headrest and footrest of Muryeong and his consort are decorated with hexagonal patterns and designs representing “rebirth on a lotus flower” (蓮華化生). On the queen's headrest, various forms of lotus flower and “birth as a celestial being” (天人誕生) designs are found within the hexagons, along with makaras and palmettes, signifying sources of life. Each of these graphic elements reached Baekje at a different time and from a different place, indicating that this pattern, which combines them, was created in Baekje itself. The designs reflect the desire of Muryeong and his consort for a smooth passage to paradise. Meanwhile, the upper parts of the queen's headrest and footrest are decorated with bird and tree branch motifs, regarded in ancient times as media linking Heaven and Earth. These are based on traditional beliefs in birds and trees; in conjunction with other Taoist-influenced artifacts, they signify the driving away of evil spirits and the ascent of the deceased to become an immortal with supernatural powers. When we recall that the headrests and footrests were used as part of a Baekje adaptation of Confucian funerary rites in order to protect the bodies of the deceased, the coexistence of Buddhist, Confucian and Taoist elements becomes apparent. The headrests and footrests of King Muryeong and his wife are thus funerary items that reflect a Baekje view of the afterlife that was based on a variety of ideological aspects.